

언론피해구제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주 동 황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1. 머리말

1987년 이른바 민주화운동 이후 정부가 언론자유화 정책을 취함에 따라 기존 언론계에서 고착돼 온 과점적인 경쟁제한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그 후 전국적으로 신문들이 창간 또는 복간되어 그 수가 크게 늘어났을 뿐 아니라 방송의 경우에도 새롭게 라디오방송, CATV, 지역민방 등 수많은 방송채널들이 등장하였고 지금은 곧 위성방송의 출현이 예상되고 있을 정도로 언론계는 양적인 확대를 계속 보여 왔다.

이런 언론환경의 변화가 한편에서는 개인과 집단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의 정보화를 진전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언론사간 시장경쟁을 격화시키고 이에 따른 선정적이고 무책임한 언론보도를 유발하여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등 그로 인하여 일어나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언론에게 자유와 경쟁의 폭이 크게 확대됐으나 언론의 윤리수준은 그만큼 향상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정보화 사회의 진전이 개인 데이터의 수집과 이용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고 있음과 더불어 프라이버시 문제는 전통적인 '홀로 있을 권리'의 수준을 벗어나 새로운 차원의 위협을 받기에 이르르고 있기도 있다. 언론환경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러한 침해는 심각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언론의 역기능과 언론에 의한 개인법익의 침해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커져가면서 언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비판 여론도 함께 비등해 왔다. 이에 따라 언론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도 더불어 바뀌어져가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언론자유는 정치사회의 민주화와 자유화를 위한 필수적인 도구로 여겨졌다. 그렇지만 독재정권이 물러나고 민주적 정부가 들어선 오늘날 언론은 오히려 언론과 개인의 관계에서 조명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법익의 침해와 그에 대한 피해구제의 모색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런 변화의 일면으로 최근 언론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나 반론권 요구가 크게 늘고 있다. 언론소송과 반론 요구가 늘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 1980년대 말 민주화 등 사회적 여건이 크게 변하고 시민의 권리의식의 수준이 향상된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경제적 풍요와 정치적 자유화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점점 개인의 욕구와 인격적 가치를 존중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증대한 것도 같은 배경으로 지적할 수 있다.

2. 언론의 자유와 개인 법익의 침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은 다같이 국민의 기본권이면서도 언론보도를 둘러싸고 서로 미묘한 상호관계에 놓일 수 있다. 근대 시민사회 이후 언론 자유의 바탕이 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 형성과 발전에 가장 기본적인 자유로서 다른 자유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모든 정치적 의사결정은 자유롭고 공개적인 여론형성에 의존하게 되는데, 언론은 보도와 논평을 통하여 이런 여론 형성의 공적인 역할을